

순창 농정 미래 찾기 심층 토론회

환경여건·농업현안·농업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순창군이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농업의 현안 해결과 미래 희망 찾기에 나서 농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순창 농정의 미래 찾기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농업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대표와 농민, 농업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기초발언을 시작으로 농업의 환경여건 및 2017년 순창 농정 추진방향 설명, 그리고 농업현안 및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초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 체제의 장기화와 쌀 관세화 한·중FTA 등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내부 여건 변화로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군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농식품 6차산업화, 기후변화 신 소득작물 발굴, 3040세대 귀농귀촌인 적극유치, 통합마케팅을 통한 유통체계 혁신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지역 농업예산의 현황과 농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본격적 토론 전 참석자들이 지역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날 토론회의 심층 토론 사항은 6가지로 정리된다.

△벼육묘용 상토 지원방법 개선 △유기농 특구 신청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지원방법 개선 △이모작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대응 품목 발굴 △농업인 교육 기회 균등 제공 등 지역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이다.

상토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상토사업을 통합해 직불금처럼 지원하는 방안, 과다 신청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

원은 농협을 통해 신청·공급받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겨울 농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작부 체계 정립의 필요성과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논 콩재배 등 타작물 전환, 친환경 재배 확대 등의 사항도 토론의 집중 의제가 됐다.

또 최근 심각한 기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유통망 및 재배기술지도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농민들이 직접 토론 사항을 선정하고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 많아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토론회"는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도출된 대안들을 내년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농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원형 기자

임실군,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 실시

18일까지 예비창업농업인 대상

임실군은 작지만 경쟁력 갖춘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해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 식품전문 농업인 CEO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성수면 소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농산물가공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 농업인과 소규모 식품제조업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원료특성별 가공방법, 식품위생법, 포장디자인, 기본세무회계, HACCP인증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생 신모(31, 삼계면)씨는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인도 가공산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품질 좋은 가공품을 생산해 판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실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대지면적 2,480㎡, 2층 규모로 각종 가공장비 24종 38대를 보유하고 있어 복숭아병조림, 블루베리시럽, 토마토잼, 와송음료 등 17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가을 스포츠 대회 열전 '돌입'

12월 초까지 야구·테니스·궁도 등 6개 대회 2500여명 선수단 참가

순창군이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연이어 성공해 풍성한 가을 스포츠 대회 열전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2016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와 제3회 순창배 전라북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고 20일은 제46회 전라북도지사기 정구대회가 열린다.

또 이어 2016 전국 어르신 정구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제20회 전라북도지사기 궁도대회가 27일을 열린다.

또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제10회 전국 아마추어 정구대회와 제7회 순창 고추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열리는 등 11월부터 12월 초까지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순창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준비된 시설과 특화된 마케팅 방법이 한몫을 하고 있다.

군은 지자체와 과열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인기종목 유치 외에도 틈새 스포츠 대회인 각종 동호인 등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며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순창을 찾도록 하고 있다.

군은 강천산 단풍이 11월 중순이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참여자들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생활체육 관심도를 높여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간접효과도 큰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경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선수들은 물론 함께 순창을 찾은 분들이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자체 체육행사는 제13회 협회장배 장기대회(9일),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축구대회(9일), 체육회장배 배구대회와 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12일), 체육회장배 축구대회(20일)도 개최해 늦가을 순창의 체육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순창=이원형 기자

임실군,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실시

10일까지 공무원 50명 대상

임실군은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강진면 소재 필봉농악 전수관에서 신기현 전북대학교 행정학 교수를 초빙해 정부합동평가 이해, 평가결과 점검을 비롯해 2017년

평가대비 대응방안 등의 강의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김보연(現)전북공무원교육원 강사의 '주민의 눈으로 규제개혁 다시 보기'를 주제로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의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는 "딱딱하게 느껴졌던 규제개혁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교육받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시·군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과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중소기업 등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행태개선을 통해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성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기업연합 사회공헌활동 성료

노후 주택 전기선 교체·치과진료·한방진료 등 진행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주최로 14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한 '기업연합 사회공헌활동'이 9일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소외지역을 찾아 전문 재능 나눔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진행한 이번 행사는 관촌면 방동마을과 막동마을 일원에서 마을주민, 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KT, 한국가스안전공사, 원광대 치대병원, 우석대 한방병원을 비롯해 관내 금성안경원, 군지원봉사센터 등 14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해 대규모 전문 봉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후주택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선교체, 효도전화기 증정, 화재감지기 설치, 가스안전 점검 등의 시설관리를 비롯해 돌보기 무료제공,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봉사도 진행됐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은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탄 1천장을 지원하고 전라북도 지원봉사센터

는 삼계탕을 중심으로 제공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가남 방동마을 이장은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단체와 기업들이 마을을 찾아 주민 입장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 정말 감사하다"며 "며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도내 기업사회의 다양한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민 행복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며 "효율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기업·기관·단체는 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KT전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우석대 한방병원, kcs전북사업단, KT전북유선운용센터, 원광대 치대병원, 전라북도 치과 기공사회,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 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 금성 안경원,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실자원봉사센터, 관촌면사무소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만전

비상상황실 편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응급복구를 위해 상황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운영하는 한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을 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와 지역 내 전광판에 게시하고 마을회관·아파트 등에도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겨울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되어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며 "동파방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행정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파방생 방지를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외부를 보온 조치해야 하며 내부는 동파 방지막, 헨웃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 등으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혹한기에는 보온장치를 해도 동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소량 틀어 예방해야 하고 잠기 출타 시에는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계량기 함 속 밸브를 잠가야 한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 갑자기 50°C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가하면 계량기 고장이나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 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육내(계량기 이후)의 언 수도관은 각 가정에서 조치해야 하며, 만일 동파되어 계량기가 깨지거나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팀(560-8982, 8984, 8986)으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현장 복구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흥부제 결과보고회 개최

제24회 흥부제 결과보고회가 지난 8일 이환주 시장과 김진석 흥부제전위원장을 비롯한 흥부제전위원과 행사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회는 행사 추진결과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기타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제24회 흥부제는 남원대표 전통문화인 흥부 정신을 고유제와 농악을 비롯한 전통경연, 흥부체험마당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존·계승했으며 축하공연과 흥부라들라라 한마당, 문화 나눔 장터,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민 화합의 축제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흥부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업하여 2016 남원시와 함께하는 '무형유산한마당'을 개최해 삼동굿놀이, 당진시 기지시들라라, 무형유산원 기획공연 등 흥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지역무형유산을 알리고 체험하며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관내 사회단체들이 모여 나눔의 흥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재활동 장터, 프리마켓, 버스킹공연이 어우러진 문화나눔장터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생황을 이뤘으며 판매수익금의 10%는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발효식초 제조사 16명 배출

순창군이 천연발효식초 교육과정을 통해 발효식초 제조사 16명을 배출해 향후 창업 및 농업 6차산업 리더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진행한 농촌생활 평생학습 '천연발효식초' 교육 수강생 23명 중 16명이 최근 '발효식초제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응시생 16명이 합격해 100%합격률 성적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천연발효식초교육은 △식초 발효학 △식초 재료학 △식초 총론 △곡물주 빛기 △과일식초 만들기 △알코올 도수 및 총산도 측정 △관능평가 △숙성관리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돼 발효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 목적을 뒀다. 군은 이번 교육이 식초는 물론 주류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줘 주민들이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발효식초제조사 자격증 취득이 6차 산업 활성화와 전통 발효식품의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발효의 고장 순창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식초 육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효식초를 제조하여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순창=이원형 기자

도 무형문화재 기능공개 행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옷칠장안꾼, 박강용(정제), 목기장 노동식 선생의 무형문화재 기능공개 행사가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천연고도 남원의 명족의 영산 지리산의 중심도시로서, 구산선분 실상사가 자리하여 통일신라 때부터 목기산업이 발달하여 왔다. 목기장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목재의 특성을 잘 살펴 정교하게 목기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 보유자이고, 옷칠장은 목기에 전통기술인 옷칠을 전통기법으로 아름답게 칠하는 기술 보유자이다.

첫째 날 9일에는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으로 지정(2006. 11. 17) 받은 안근 선생이 정일품공방에서, 11일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목기장 제11-3호로 지정(1996. 3.29)된 노동식 선생이 관란투입 내 월매집에서,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정제) 분야로 지정(2008. 1. 4)된 박강용 선생 남원시 옷칠공예관에서 공개행사를 실시한다.

전북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공개 행사를 통해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전통무형유산에 대한 향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남원 목기와 옷칠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임실군은 관촌면 소재 임실정수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임실정수장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소방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한 종합점검 점검 시 소방설비의 최적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용수 공급 펌프 및 예비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와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의 근간인 정수처리시설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